

궁 답을 넘지 못한 실록과 야사 속 은밀한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의 뒷담화

김경민 지음

드라마틱했던 대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 초반빙이었다. 보수와 진보로 결집된 투표는 헌정사 최소 0.8%P를 기록했다.

죽기 살기로 선거에 이기려는 이유는 '권력' 때문이다. 승자독식의 대선에서 승자와 패자의 권력은 극명하게 갈린다. 권력은 자식과도 나눠줄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속성과도 무관치 않다.

치열한 선거 과정에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도 적지 않다.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진 쪽은 진 쪽대로 결정적인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 이면에 드러워진 이야기들은 밖에 드러난 것과는 다른 '진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혹자들은 그것을 야사라고 말한다.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 사이에는 무수한 일화가 존재한다. 오



늘날 그 틈바구니는 다양한 역사 콘텐츠의 '저수지'가 된다.

실록과 야사의 틈에 기록된 비밀스러운 역사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조선의 뒷담화'는 "동전에 양면이 있듯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한 손에 잡히는 조선 상식 사전과 '어울우등: 왕의 여인'의 작가 김경민이 저자다. 책은 저자의 스토리텔링으로 정사와 야사를 버무려 역사물로 탄생했다.

'뒷담화'는 언어 자체가 지닌 휘발성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나 조선 500년의 역사는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 소설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다뤄졌다. 그러나 '뒷담화'가 의미하는 것처럼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도 존재한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조선의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정몽주를 처단했으며 1차 왕자의 난 때는 정도전을 죽였다. 당시 이복형제였던 방자를 세자로 내세운 이는 정도전과 태조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태종은 후일 왕위에 올라 계모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파헤쳐 다른 곳으로 천장(遷葬)했다. 무덤 앞의 사람 형상인 석인(石人)은 땅을 파고 묻게 했다.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세종은 며느리 때문에 골치

았었다. 첫째 며느리를 폐하게 된 사건은 남녀 간에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술과 연관 때문이다. 세종은 궁내에 세자빈과 관련한 이상한 소문이 돌자 세자빈의 시녀를 불러 직접 심문을 했다. 시녀는 세자빈이 남자에게 사랑받는 술법이 있다고 묻기에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강요에 못 이겨 주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다.

세종은 근정전에서 폐비에 대해 이렇게 하교했다. "뜻밖에도 김씨가 미혹시키는 방술을 쓴 단서가 발각되었다. 내, 그리하여 휘빈 김씨를 쫓아내었다."

청렴결백의 상징인 황희는 사람을 죽인 사위 서달을 감싸주기 위해 청탁을 했다. 서달이 자신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을 아전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다. 황희는 우의정 맹사정에 부탁을 했다. "말을 과부로 만들 수 없지 않느냐"는 청이었다. 결국 서달의 죄는 그의 종이 뒤집어쓰게 됐고 자신은 방면됐다.

그러나 몇 개월 후 정사를 보던 세종이 사건의 보고서를 접하게 된다. 장계(狀啓지방 관원이 임금에 올리는 글)가 늦게 올라온 연유가 이상해 자초지종을 알아본 결과 진상을 알게 된다. 세종은 황희와 맹사정을 파직하고 황희 사위 서달은 외아들인 점을 감안해 장 100대에 귀양을 보낸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세 번째 계비다. 중종은 연산군이 폐위되자 왕으로 추대됐다. 피비린내 나는 궁궐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 문정왕후는 오빠인 윤원로와 남동생 윤원형, 그리고 윤원형의 첩이었던 정난정과 권력을 차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명종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았다. 명종이 왕이 되었지만 그녀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왕은 아드님이 아니라 나입니다'라는 표현에서 권력에 집착했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책비·1만8000원)

▲실록과야사의 틈 바구니에는 알려지지 않는 은밀한 이야기가 놓여 있다. 사진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쁜 토끼

와카타케 나나미 지음·문승준 옮김

하무라 아키라는 프리랜서 탐정이다. 그는 가출한 17세 소녀 다이라 미치루를 집으로 데려오라는 의뢰를 받는다. 현장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살해 위협이었다. 옆구리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과 갑작스럽게 당한 발등 골절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키라는 미치루를 무사히 부모에게 인계해 준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아키라에게 행방불명된 미치루의 친구를 찾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사라진 소녀의 행방을 추적하던 아키라는 미치루 주변에서 사라진 소녀가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일본 코지 미스터리의 여왕인 와카타케 나나미의 초기 걸작 '나쁜 토끼'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탐정이 맞닥뜨린 사상 최악의 9일간의 그리고 있다. 제55회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후보작에 오를 만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소설에서 그려지는 아키라 탐정가의 모습은 서민적이고 불우하다. 수없이 깨지고 얻어맞으면서도 꿋꿋이 사건에 맞서는 하드보일드한 모습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다면 그는 사라진 소녀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까.

한편 아키라의 절친 미노리에게 나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아키라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 사건들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과연 그는 곤경 속에서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작가는 주인공 아키라 뿐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들을 도구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집 주인, 경찰관, 이웃 주민 모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생동감있게 그려낸다.

(내 친구의 서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프레임의 수사학

김호영 지음

오늘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시각 관련 시대에 '세계관'의 출발을 사유하는 데 있어 긴요한 화두는 무엇일까? 바로 프레임이다. 모든 시각예술이 핵심 요소이자 인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회화와 사진, 영화를 모티브로 하는 시각예술에서 '프레임'의 기능과 작용을 분석한 책 '프레임의 수사학'은 프레임 미학론과 시대와 장르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한양대 프랑스학과 김호영 교수. 김 교수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실재와 이미지, 현실과 상상을 오가는 '재현' 문제에 주목한다.

"프레임은 재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미지에 대한 미학적 수용의 조건이다. 모든 예술가는 프레임을 통해 혼돈 속에서 하나의 시각장을 선택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그 내부 요소들에 각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프레임'은 시각예술의 재현의 조건인 프레임을 정의한다. "이미지의 모태이자 기초적 절단"이며 "분리이자 통합, 한정이자 위반의 경계"로 정의된다. 2부 '이차프레임 혹은 프레임 안의 프레임'에서는 프레임 안의 프레임에 초점을 맞췄다. 회화-사진-영화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작품 안에 삽입되는 이차프레임을 설명한다. 저자는 화면의 깊이감과 실재감의 구현된 마사초의 '성삼위일체', 벨리니의 '성모와 성인들' 회화 등을 예로 든다.

3부 '탈프레임'에서는 회화에서 사진과 영화로 넘어가면서 프레임의 의미작용의 변화 등을 분석한다. 내화면과 외화면의 관계, 다시 말해 외화면 영역과 관련된 논의들이 제기되면서 부각되는 경향을 이야기한다.

(문학동네·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열 펄파리 공간

이창민 지음

1인 가구, 주거, 부동산 등의 사회문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책이 출간됐다.

이창민 작가의 '열 펄파리 공간'은 대한민국 주거 공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SNS에 올린 글을 책으로 출판하는 SNS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안경', '믿어줘서 고마워' 등을 펴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SNS문화진흥원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강연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주거와 공간을 찾지 못한 채 사회로 뛰어들어 이들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결혼, 출산, 불안한 미래, 격차와 차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책은 1부 '독거 청년과 독거노인, 열 펄파리 공간', 2부 '보이지 않는 미래, 서러움과 고통의 열 펄파리 공간', 3부 '공간과 환경의 상관관계와 '주거 판갈이론'', 4부 '우바미, 우리가 바꾸는 미래-공간에 대한 바람과 메시지'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저자는 주거와 공간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와 그로 인한 아픔을 다양한 경험과 사례로 보여준다.

저자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이 더욱 가속화하다 보니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주거 공간에 대한 혁명과 혁신을 꾀한다.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한다.

한편 저자는 폐지 주거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책 내지 전체를 재생종이로 구성해 나눔 페이퍼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경일보·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3월호

2022년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걷고 싶은 도시

광주를 꿈꾼다

— 걸으면 도시가 살아난다
— 도시에 퍼지는 푸른 입김, 행복해지는 길
— 걷고 싶은 길, 연대와 이야기 있는 살고 싶은 도시
— 걷는 사람 중심 공간 대전환, 일본의 워커히비티

美路 味路

생태관광의 최적지 구례의 새봄, 싱그럽다

- 5년만에 복원된 화엄사 4사자3층석탑
- 산수유마을과 쌍산재, 구례수목원과 지리산정원
- '지리산과 하나되기' 산수유촌 '봄내리는 당산나무' 김부각
- 우리일로 만드는 수제과자점 '사내레밀'

연중 기획 광주 한 바퀴

GWANGJU TOUR

#3월 광주여행
#K-POP #Fan zone
#벽화

매향 초대석

시민과 인문학 소통하는 철학자

성진기

"철학이 대중 속에 숨쉬면 좋겠어요"

헤이문화기행 4- 독일 뉘른베르크

중세의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뒤러의 예술과 고풍 성벽을 만나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

해인사

샷된 없는 깨달음의 청정도량

클릭, 문화현장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빛·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문화를 품은 건축물

자연 담은 '물 위의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문화 화제

'박서보예술상' 제정으로 본 광주비엔날레와 예술상

회제의 전시

광주에 동지 트 외지 문화인들이 말하는 '광주라는 도시'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산밥에 총각김치면 죽해"

윤형근, 그림처럼 단순한 점심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영화 '더 파더'와 비제 '진주조개잡이' 아리아